

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참여 형태 연구

A Study of the Digital Generation's Political Apath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Using Causal Loop Analysis

김강훈* · 박상현**

Kim, Kang-Hoon* · Park Sang-Huyn**

Abstract

South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gether with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democratic process in South Korea, ordinary people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conventional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elections. But recently, one of the salient phenomena is that the public have been showing political apathy associated with a light poll. Especially, the most serious concern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South Korea is that young voters (e.g., 20-30s) have serious political apathy leading to low voter turnout.

Regarding this concern, many political scientists argued that this political phenomenon is not only the case in South Korea, insisting that many consolidated democratic countries such as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have the same problems. However, South Korea has contained different factors (e.g., historical, culture, social, and political differences) leading to political apathy and light poll. Unfortunately, no one has clearly explain the phenomenon. In fact, in order for scholar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se concerns, they should carefully look at the phenomenon with diverse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why the digital generation has political apathy and are reluctan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voting.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제1저자, ironhoon@etri.re.kr)

**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교신저자, shpark@nia.or.kr)

Using causal loop analysis which is based on systematic thinking, we not only analyzed the pattern of the digital gener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with regard to diverse perspectives, but also attempted to draw new political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Based on our analysis, we trie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political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Keywords: 디지털 세대, 정치 참여, 민주주의, 인과지도 분석

(digital gener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democracy, causal loop analysis)

I. 서론

한국의 민주화는 다른 어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보다 비약적인 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Huntington, 1991; Lee, 2002; Lipset, 1994; Shin et al., 2005; Young, 1989). 더불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함께 이루었다. 이러한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선거 등 관습적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지병근 외, 2008) 최근 들어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두드러지고 그에 따른 투표율 저하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Kim, 2009, 2010). 특히 20-30대 젊은 유권자(이하 디지털 세대로 함)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¹⁾

많은 연구에서 투표율 하락을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주장하며 단순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투표율 하락 현상을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투표율 하락은 오랜 세월동안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고 사회 갈등을 대표하고 동원하는 정당체제가 자리 잡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최장집, 2002; 김정기 외, 2011). 반면 민주주의가 온전히 공고화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대표하는 정당 정치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은 분명히 새로운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잠재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을 다양한 이론과 정치적 담론에 근거하여 재해석하려는 시도 또한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개별적인 이론과 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함에 따라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의 원인을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통합적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 문제를 통합적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시스템 사고에 근간을 둔 인과지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세대의 정치참여 현황 및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디지털 세대는 N세대(Net Generation)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2002년 세대, 정보화세대, 2030세대 등과도 유사한 의미로 통용된다. 일반적으로 신세대라고 부르는 세대 역시 디지털 세대와 공통적인 성격을 공유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유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2년 월드컵과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디지털 세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개념은 김기환 외(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투표율 하락

서론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듯이, 한국의 민주화는 세계의 다른 신생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한국을 민주전환의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있다(Huntington, 1991; Lipset, 1994). 예로서, 대통령 직접선거,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권위주의 법률의 폐쇄, 국민기본권의 신장, 군부의 정치개입배제, 지방자치제도 시행, 시민단체의 정부와 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치자금과 정치부패 관련 입법의 강화 등 민주적 제도와 관행의 도입과 정착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가 진행된 중남미, 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놀라운 발전이다(마인섭, 2002: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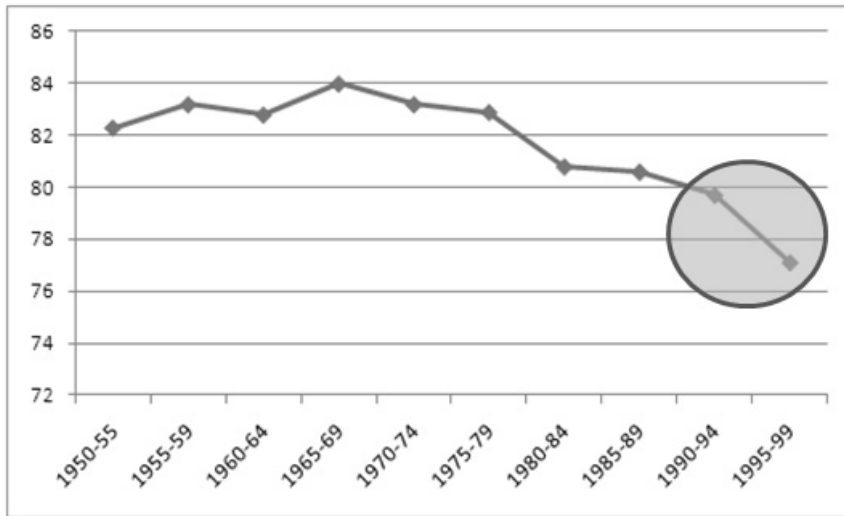
민주주의는 흔히 다수의 지배로 정의되고 참여와 경쟁과 대표를 원리로 한다. 다수의 지배가 민주적인 원칙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와 경쟁, 그리고 대표에 대한 일반성과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최장집, 2002; 마인섭, 2002). 이와 함께,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치(self-rule)에 의한 정부라 말할 수 있다. 즉, 시민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그들의 이해를 조정하며 정책결정을 하는 정치제도이다.²⁾ 이러한 정치제도를 운영하려면 시민들은 다양한 정치개입형태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보여야한다. 만약 시민들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정치에 동원화된다면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어수영, 1991).

민주주의는 또한 기본적으로 정치문제에 대한 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투표율이 낮을 경우 사회의 다양한 선호들이 잘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은 수의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선된 정치인의 경우 정치적 대표성과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정통성의 문제가 계속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요컨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Dalton, 2008: 77).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이후 투표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세대들이 투표율 하락은 21세기 새로운 정치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는

2)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는 통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에 공식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개인의 활동을 일컫는다. 시민들은 그들의 정치참여의 정도(논객, 방관자 그리고 무관심자)와 개입형태(예를 들어 관습적, 비판습적, 또는 이 두 가지 형태)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Hague & Harrop, 2007: 165).

우리나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의 원인을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낮은 투표율과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 하락을 같은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림 1]은 22개 민주주의 선진국의 1950년부터 1999년까지 총 356회 선거의 평균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다.³⁾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 1970년 이전까지는 일부 구간에서 약간의 투표율의 하락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행태는 지속적인 투표율 상승이 이어졌다. 반면 1970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는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예컨대 1950-55년 사이의 22개 국가들의 투표율은 약 82.3%, 1965-69년 사이에는 84% 이상의 투표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1980-84년 사이에는 80.8%로의 투표율이 하락했으며 1995-99년 사이에는 77.1%까지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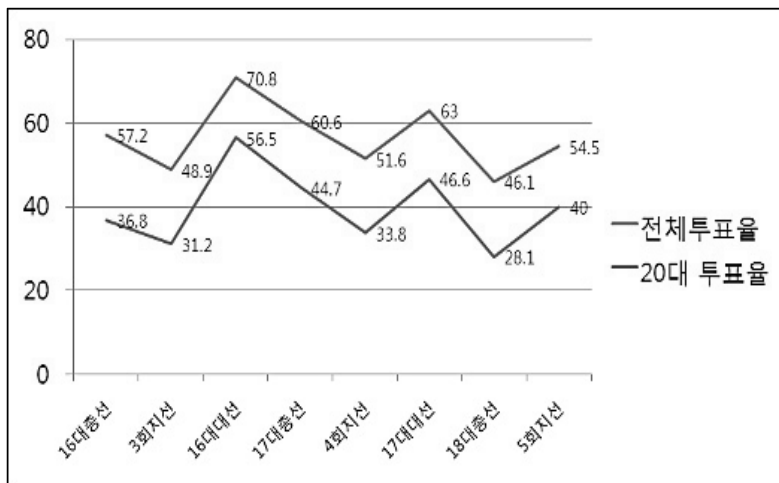
[그림 1] 민주주의 선진 22개국의 투표율 변화 추이 (Franklin, Mark N., 2004. p. 172)

민주주의 1세대와 2세대 국가들의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을 Franklin(2004)은 제도의 변화, 선거과정에서의 경쟁과열의 부족, 그리고 경쟁과열의 부족의 하나의 반응으로서 유권자들의 참여비율 감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한다. 선거 결과가 불확실할 때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대두될 때 투표 참여율이 상승하지만(Franklin, 2004: 2),

3) 총 22개 국가 : 호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몰타,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유권자 개개인들이 자국의 민주주의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느낄 때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다(Patterson, 2002; Piven & Cloward, 2000; Teixeira, 1992; Wattenberg, 2002).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Riker와 Ordeshook(1968)은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저조한 투표 참여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종합해 보면, 민주 선진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투표율의 하락은 오랜 세월동안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고 사회 갈등을 대표하고 동원하는 정당 체제가 성숙된 이후에 나타는 정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는 최근 우리나라 선거별 전체 투표율과 20대 투표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열망 속에서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와 198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투표율은 각각 89.2%와 75.8%였다. 하지만 2000년 16대 총선 투표율은 57.2%였으며, 200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48.0%로 투표율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16대 대통령 선거와 17대 총선 투표율은 각각 70.8%와 60.6%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4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1.6%, 17대 대통령 선거는 63%, 18대 총선은 46.1%의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16대 총선의 20대 투표율은 26.8%이었으며 3회 지방선거는 31.2%, 16대 대통령 선거는 56.5%, 17대 총선은 44.7%, 17대 대통령 선거는 46.6%, 4회 지방선거는 33.8%, 18대 총선은 28.1%로 전체 투표율 변화와 행태를 같이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20% 가량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대 투표율의 변화는 선거의 유형과 정치적 이슈와는 별개로 세대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최근 선거별 전체 투표율과 20대 투표율(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이처럼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20~30대(디지털 세대) 유권자의 저조한 투표참여율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유권자의 의무라고 모두가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마다 또는 시대마다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Blais, 2000: 113).

2.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의 주요 원인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을 다양한 이론과 정치적 담론에 근거하여 재해석하려는 노력 또한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민주화 이후 민주 대 반민주주의 균열을 대치할 만큼 심각한 쟁점이 존재하지 않아 민주화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기대감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최장집, 2002; 마인섭, 2002). 둘째, 잘못된 정책 또는 정치·정책 결정 과정으로 형성된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 따른 정치적 기권사유를 지적하고 있다(Funk, 2001; Hibbing and Theiss-Morse, 2001, 2002; Kim, 2009, 2010; Lawrence, 1997; Nye, 1997). 셋째, 디지털 세대의 정치참여 형태 변화도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Dalton and Wattenberg, 1993; Dalton, 2008). 즉, 선거와 같은 관습적 정치참여 보다는 블로그, 미니홈피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점에 당면해있는 사적인 문제(예: 취업, 진학, 병역)등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변희재·여원동, 2008). 즉, 개인화 추세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⁴⁾

1) 정치적 이슈의 부재와 정치적 기대감 감소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은 상반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매우 높았다. 특히 군사정부가 이끌어 왔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선거는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정치적 쟁점이 되지 못했으며 디지털 세대의 저조한 정치참여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최장집, 2002; 마인섭, 2002).

최장집(2002)은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은 “투표를 대안으로 설정한 운동”이라 주장한다.

4)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실증연구가 부족함을 본 연구자는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나와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과 젊은이들은 유권자가 직접투표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점차적으로 공고화되고 발전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화염병과 돌맹이를 들고 민주화를 외쳤으며, 사회적 안정과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되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은 화염병과 돌맹이 대신 투표용지를 손에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투표는 안정적인 사회변화와 정치적 개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다시 말해, 민주화 이후 네 번의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도 지속되고 있는 경제문제, 청년실업 문제, 사교육 문제, 주택문제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디지털 세대들은 정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Kim, 2009, 2010).

2) 정책과 정치 · 정책과정의 문제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 · 정책결정과정에서 보여주는 정치적 불신으로 인한 정치적 기권 사유도 디지털 세대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⁵⁾ Lawrence(1997)와 Nye(1997)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Nye(1997: 8)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 하여도, 국민들은 그러한 정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믿을 때 정치적 불신과 정치적 무관심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즉,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불신과 불만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Lawrence, 1997; Nye, 1997), 국민들의 정책의 선호와 정부의 실질적 정책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이로 인해 정치참여를 꺼려함을 추론할 수 있다.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정책의 문제와 함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 파행의 모습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끊임 없는 정치인들 간의 흠집내기식 정치행위, 그리고 이기적인 정치적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점점 정치를 외면하게 된다(Funk, 2001; Hibbing and Theiss-Morse, 2001, 2002; Kim, 2009, 2010).

하지만,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높은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치적 불만을 표출할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서 일반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누구를 선출하든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부정적 기대감으로 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며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된다(Hibbing and Theiss-Morse, 2001, 2002; Kim, 2009, 2010). 즉, 정치 또

5) 정치과정이란 정치의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말한다. 즉, 정치권력의 획득 · 유지를 위한 정치활동인 선전, 선동, 여론형성 및 선거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과정에서 보여주는 정치인들의 이기적이며 부정적 행위들로 인해 일반국민들은 점점 정치인을 불신하고 점점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Hibbing & Theiss-Morse, 2002).

는 정책결정과정은 일반국민들이 중요한 행위자로서 자발적으로 참여 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된다면 점차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스텔스 민주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Hibbing and Theiss-Morse, 2001, 2002; Kim, 2009, 2010).⁶⁾ Hibbing과 Theiss-Morse(2001)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스텔스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65% 이상이 스텔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9)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우리나라 역시 80.2%의 응답자가 스텔스 민주주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즉, 정책결정과정 또는 정치행위 과정에서 보여지는 정치인들의 비도덕적, 이기적 정치 행동들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되며 이는 선거 불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의 형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특정 안건을 사전에 국민들이 심의하고 그 사항을 국민들 스스로가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절차를 순수 직접 민주주의라 한다. 이 순수 직접 민주주의는 규모가 큰 국가 범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예로서 부락의 자유 토론(Town Hall Meeting)과 배심원 제도를 들 수 있다. 둘째, 책임성은 있으나 부분적으로 사욕을 가진 엘리트가 특정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절차를 직접 민주주의라 한다. 그 한 예로서 국민투표(Referendum)를 들 수 있다. 국민투표는 헌법이나 법률안 등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확정하는 국민투표 등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Lupia and Matsusaka, 2004). 셋째, 특정 안건을 사전에 국민들이 심의하고 그 사항을 책임성은 있으나 부분적으로 사욕을 가지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이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절차를 심의 민주주의라 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보다 많은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넷째, 특정 안건을 책임성은 있으나 부분적으로 사욕을 가지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이 심의하고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절차를 대의 민주주의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범주에 속한다. 특정 안건을 정치 엘리트들이 심의하고 그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신

6) 스텔스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 또는 정책결정과정은 일반국민들이 중요한 행위자로서 자발적으로 참여 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정책입안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또는 그들 스스로가 정책입안자로서 참여 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스텔스민주주의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Hibbing & Theiss-Morse, 2002: 143). Hibbing과 Theiss-Morse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준 중에 두개이상을 선호한다면, 그들은 스텔스민주주의를 선호한다. 첫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political debate)은 필요 없거나 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둘째,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합의(compromise)는 불필요하다. 셋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여야만 한다(Hibbing & Theiss-Morse, 2002: 143).

7) [그림 3]은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과정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의 참여의 정도를 바탕으로 정치제도(즉, 순수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형태의 구분을 나타내고 있다.

의 이익이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Schweizer, 1995: 367).

마지막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책입안자들 사이의 정치적 논쟁과 타협 없이 보다 객관적인 정책입안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민주주의 절차를 스텔스 민주주의라 한다. 즉, 앞서서도 간단히 지적했듯이, 스텔스 민주주의의 확산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Hibbing and Theiss-Morse, 2001, 2002; Kim, 2009, 2010).

		사전결정	심의	
		국민	책임성은 있으나 부분적으로 사육의 엘리트	객관적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책임성이 없는 엘리트
결정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운홀 미팅과 배심원 제도⁸⁾ •나바호 민주주의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투표 •텔레민주주의 또는 전자민주주의 	—
	책임성은 있으나 부분적으로 사육의 엘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 집단 또는 결사체 민주주의 •정책배심원제 •숙의여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의민주주의 	—
	객관적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책임성이 없는 엘리트	—	—	스텔스(STEALTH) 민주주의

[그림 3] 민주적 절차의 형태(Hibbing and Theiss-Morese, 2002: 239)

3) 정치참여 행태 변화

세 번째 요인으로 디지털 세대들의 정치참여 행태 변화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세대의 정치참여 행태는 투표행위, 선거활동과 같은 관습적 정치참여에서 정치집회 참가,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토론 등 비관습적 정치참여로 전환되고 있는 주장이다(예: Dalton and Wattenberg, 1993; Dalton, 2008; 박찬욱, 2005; 김형준, 2004). 대다수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관습적 정치참여만이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시민이 행하는 바람직한 참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관습적 정치참여만이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시민의 바람직한 정치참여라 단정 지을 수 없는 주장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예: Dalton,

8) 공동체의 자유토론방식으로,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공동체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했던 미국식 공개토론방식을 말한다.

9) 미국의 인디언 부족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부족으로서, 중앙집권적인 부족조직이나 정치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아파치족들과 비슷하다. 특히, 대부분 선거를 통해 우두머리를 뽑으며,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부족인 전체가 직접 참여하는 독특한 정치참여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2008). 서명운동이나 평화적인 시위와 같은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통해서 정부에 항의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합법적 형태의 행위도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시민의 정치참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정법의 제약을 넘어서는 참여행위라 할지라도 비폭력적인 불복종은 많은 시민들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도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관습적 정치참여를 보완하여 정치 엘리트와 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도 있다(박찬욱, 2005: 151-2).

그 한 예로서, 지난 2002년에 미선·효선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정치행위가 실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정치 효능감이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비관습적인 정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경민·송효진, 2010).¹⁰⁾

이와 함께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행태는 무능한 정치권에 대한 극단적 불신, 기존의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담론생산의 장애에 대한 대항, 그리고 개인주의적 정치성향이 독특한 문화의식 구조와 결합하여 오프라인 상의 관습적 정치참여는 점점 줄어들고 온라인상의 정치참여가 증가한다(Becker & Slaton, 2000; 최장집, 2002; 박찬욱, 2005). 이미 온라인상의 정치적 담론은 정치로부터 소원되어 있던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여론의 형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오관석(2007: 102)은 사이버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 이성의 토론은 정치적 무지를 벗어나게 해주고 있으며, 정치에 관련된 많은 정보의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정치제도가 수용하지 못하는 정치적 사회화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 온라인상에서는 개인의 의견표출이 자유롭고 참여하는데 있어서 평등하고 개방적이어서 민주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 현재세대와 구세대간의 새로운 벽을 만들어서 통합을 방해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양면성 사이에서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사적 영역의 문제

마지막 요인으로 디지털 세대의 낮은 정치참여와 저조한 투표율은 개인주의 확산의 결

10)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 사회유명인사와 연예인을 중심으로 SNS를 활용한 ‘투표 인증샷’이 새로운 열풍을 일으키면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박준, 2011).

11) 정치사회화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정치체계의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의 역할 또는 정치적 작용에 대한 특성의 감정(feelings), 태도(attitude), 신념(beliefs)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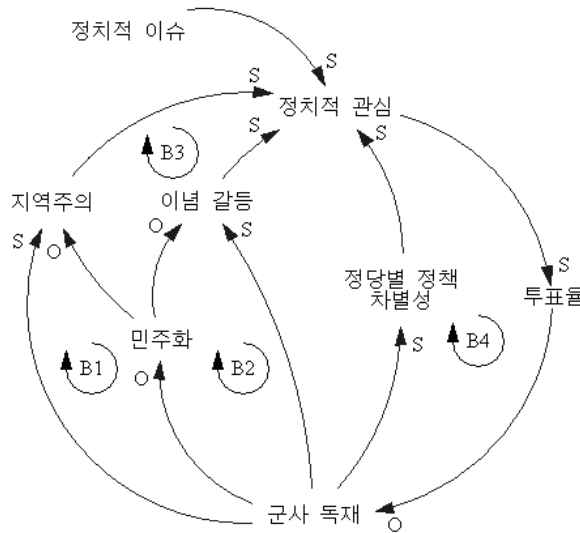
과이며, 사회 전체의 공익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시점에 당면해있는 사적인 영역(예: 취업, 진로, 병역, 이성)에 더 큰 관심에 기인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갖는다(변희재·여원동, 2008).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20대 투표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지난 2009년 하원선거에서는 20대 전반과 후반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¹²⁾ 독일 20대의 투표율 하락은 다양한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가치라는 인식과 함께, 경쟁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본의 20대의 탈정치화 경향과 선거 때마다 보이는 낮은 투표율 또한 일본이 해결해야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20대 투표율 하락은 90년대에 일어난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이후 약 20여 년간 계속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또한 10년 이상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설사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미래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치에 참여하는 시간에 자신들의 이력(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높은 영어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강의를 수강하는 등 개인적 활동에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Ⅲ. 인과지도 분석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 원인에 관한 4가지 접근 시각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개별적으로 4개의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각 인과지도는 앞서 소개한 4가지 접근 시각별 선행연구의 논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객관화된 분석을 위해 별도의 변수와 연결은 최소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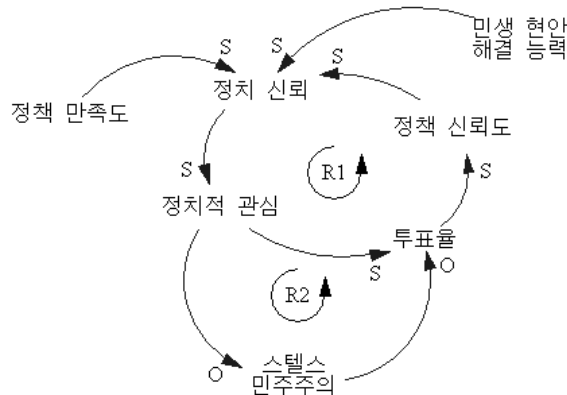
[그림 4]는 정치적 이슈 부재와 정치적 기대감 감소에 관한 선행연구의 접근 시각을 인과지도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즉, 군사 독재는 정당별 정책의 차별성과, 지역주의, 이념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념의 갈등과 정당별 정책의 차별성의 증대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투표율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투표율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군사 독재를 약화하고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군사독재에 반하는 민주화의 진전은 이념갈등 및 지역주의와 부의 관계를 가지면서 오히려 정치적 관심을 저하하고 이로 인해 투표율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12) http://www.bpb.de/wissen/C11SZM,0,0,%20Wahlbeteiligung_nach_Altersgruppen.html



[그림 4] 정치적 이슈의 부재와 정치적 기대감 감소에 관한 인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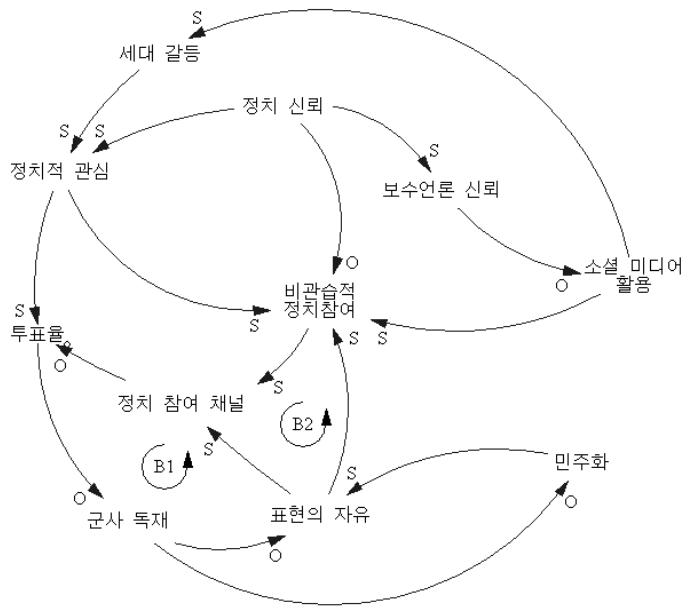
[그림 5]는 정책과 정치·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기인한 정치적 무관심에 관한 선행연구의 접근 시각을 인과지도로 간략하게 나타냈다. 즉, 정부 및 정치인들의 국민 현안 해결능력 부재와 정책 불만족 및 정책 불신, 그리고 정치인의 부정부패 등에 따른 전반적인 정치 신뢰도 저하로 인해 정치적 관심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진다. 투표율 저하는 정책 신뢰도를 더욱 낮추는 원인이 되며, 전체적으로 자기강화적 피드백을 형성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스텔스 민주주의로 빠지기 쉬우며 스텔스 민주주의는 투표율을 더욱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림 5] 정치적 무관심에 관한 인과지도

[그림 6]은 정책과 정치·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기인한 디지털 세대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관한 선행연구를 인과지도로 간략하게 나타냈다.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 증대에 따른 투표율 증가는 군사독재를 약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군사독재의 약화와 더불어 민주화의 진전 역시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으며, 표현의 자유 확대는 정치 참여 채널을 다양화하여 오히려 투표율을 저하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정치에 대한 신뢰 감소는 비관습적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는 원인이 된다. 정치 신뢰는 보수언론에 대한 신뢰와 정의 관계를 가지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보수 언론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응하여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비관습적 정치 참여를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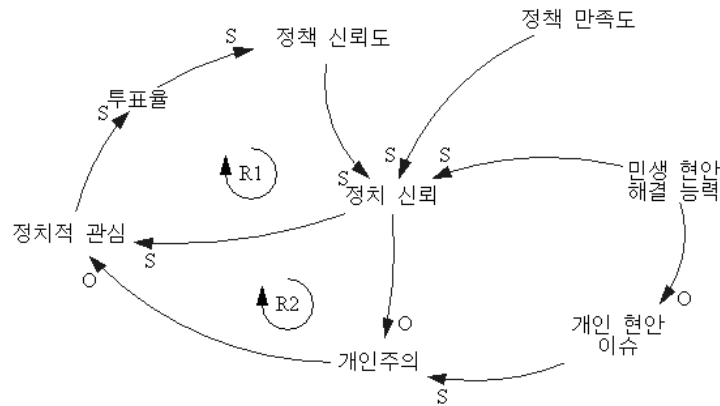
반면 소셜 미디어는 이용 계층 분리에 따라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세대 갈등은 다시금 정치적 관심 증대로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연령에 따른 투표율 차이와 세대간 경쟁에 따른 투표율의 일시적 상승 현상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김형주, 2010; 박준, 2011).



[그림 6] 정치참여행태의 변화와 정치 효능감에 관한 인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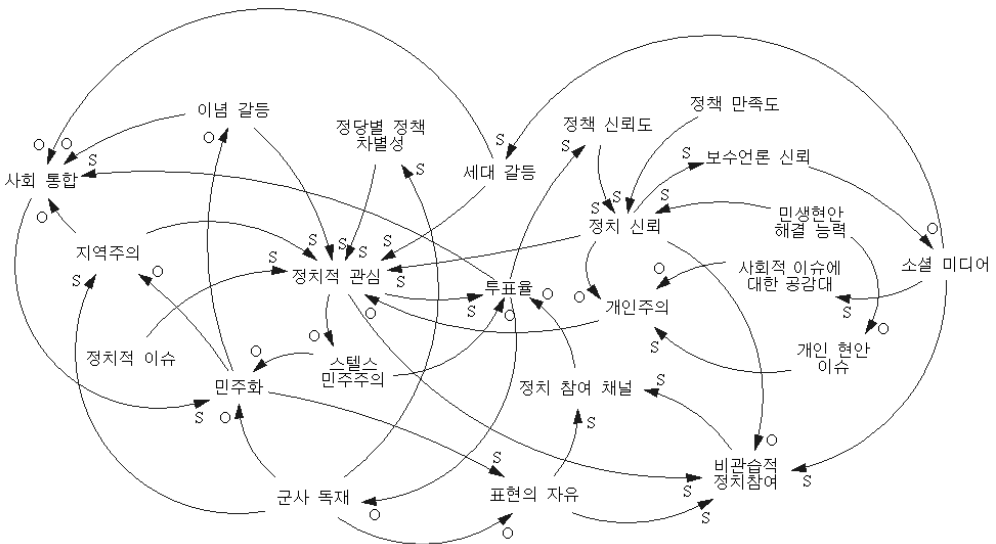
[그림 7]은 사적영역의 문제와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에 관한 선행연구의 접근 시각을 인과지도로 간략하게 나타냈다. 정책 신뢰도, 정책 만족도, 국민 현안 해결 능력은 정치 신뢰와 정의 관계를 가지며, 정치 신뢰와 정치적 관심도 정의 관계를 가진다. 정치 신뢰

도의 저하는 개인주의를 확대하며, 국민 현안 해결 능력 부재도 개인 현안 이슈를 강화시켜 개인주의를 강화시키면서 정치적 관심을 저하시킨다. 이와 같은 개인주의 확산은 자기 강화적 피드백을 형성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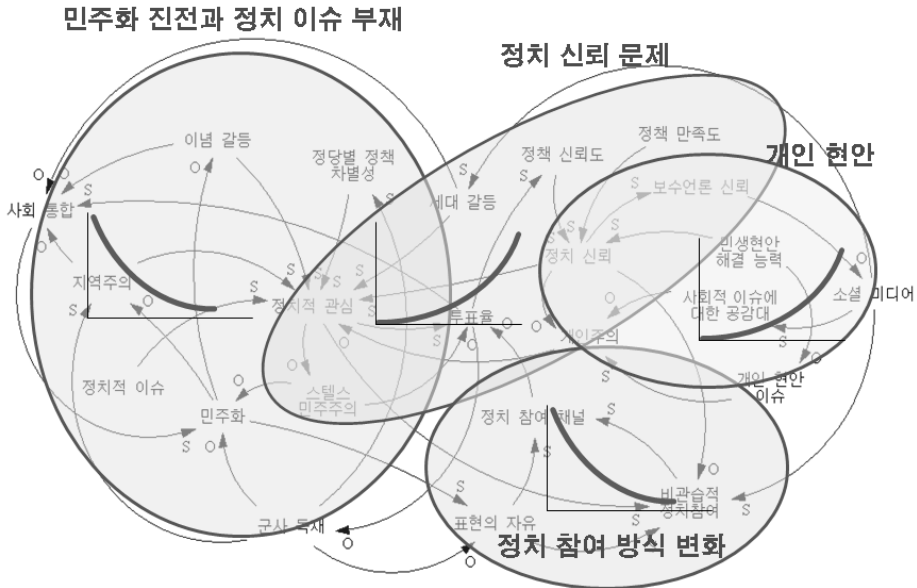
[그림 7] 사적 영역 문제에 관한 인과지도

이상과 같이 4가지 접근 시각에 대한 인과지도를 보다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상호 연결고리가 되는 변수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된 인과지도로 재구성하였다.



[그림 8]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에 관한 통합 인과지도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개의 개별적인 접근 시각은 하나의 통합된 사고 속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편적인 문제 인식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그림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합된 인과지도는 네 개의 접근 시각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통합 인과지도의 주요 행태 분석

한편 종합 인과지도에는 앞서 제시한 각각의 인과지도에 나타났던 다수의 균형 루프와 강화 루프가 존재하며, 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체적으로 동태적인 행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시된 인과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주화에 따른 정치적 관심의 하락과 비관습적 정치 참여 활동 증대에 따른 투표율 하락은 균형루프를 형성하면서 하락세 속에서도 안정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스텔스 민주주의의 확산과 개인주의의 확산은 자기강화적 피드백에 따른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체적인 행태가 안정된 균형 루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적 보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디지털 세대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예: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전달의 기회 확대와 SNS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들의 정치참여 및 감시)가 필요하겠다(김형주, 2010).

아울러 통합 인과지도에서는 개별 인과지도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

을 수 있었다.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인주의를 약화하고 정치적 관심을 증대시켜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소셜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비관습적 정치 활동이 자발적인 선거 참여 운동으로 연결되는 현상은 이러한 인과관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도 함께 잠재하고 있는데 인터넷 이용 수준에 따른 격차와 세대별로 활동하는 소셜 미디어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층간 격차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쪽에 치우친 획일화된 담론들이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으로 인해 건전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관습적 정치 활동으로도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셜 미디어와 같은 비관습적 정치 활동이 궁극적으로 관습적 정치활동으로 연계되어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이와 더불어 정치적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진전과 정치적 안정이 자리 잡기 전에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 또는 실패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위기 또는 실패를 대중의 무지와 어리석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안정시키고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지식인들의 진부함과 경직된 민주주의의 개념을 고수한다는 데 지나친 심각성을 부여해서도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지지기반이 부족한 정치인과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우리들이 풀어야 할 근본적인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세대들의 저조한 투표 참여율과 그들의 무관심한 정치참여를 새로운 민주주의의 위기로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세대들의 관습적 정치참여인 선거 참여율의 하락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들의 정치참여의 행태의 변화의 모습을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디지털 세대의 투표율 하락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단순한 해석과 맞물려 다양한 학문적 견해가 있다. 즉, 정치적 이슈의 부재와 정치적 기대감의 감소, 정책과 정책과정의 문제, 정치참여행태의 변화, 그리고 사적영역의 문제 등을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의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치적 무관심 또는 비관습적 정치행태보다는 대의제의 기본인 투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선적으로 투표에 적극성을 보인 이후 다양한 채널의 비관습적 정치행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 8]에서 나타나듯이,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민생현안 문제를 고려한 정책 및 정책결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둘째, 관습적 정치참여 방식인 선거보다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경우 세대 갈등과, 스텔스 민주주의 확산, 사회통합 장애 등이 발생하여 그간 노력해온 민주화가 역행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한 비관습적 정치 참여 활동이 궁극적으로 선거라는 관습적 정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소셜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비관습적 논의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연결되며 선거 참여 및 정치적 관심 증대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촉진한다면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관습적 정치 참여로 연계되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관습적인 정치참여(예: 인터넷을 통한 일대일 접촉 또는 SNS를 활용한 일대일 또는 일대다의 접촉을 활용한 정치참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시민이 방관자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시민 간 소통방식이 간접 소통해서 직접 소통으로 변모해 감으로써 정치의 질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박준, 2010). 하지만 비관습적 정치참여에서는 서로간의 분리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면서 어떠한 핵심적인 통일된 가치관이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는 허술하게 연결된 개인들로 구성된 대중사회를 만들 수 있다.¹³⁾ 즉 관습적인 정치참여를 배제하고 지속적으로 비관습적인 정치참여만을 강조한다면 전통적인 유대관계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중화된 사회 속에서 무분별한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확산은 안정된 정부운영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자칫 잘못하면 국정 혼란이 초래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 및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포퓰리즘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이해관계자(예: 국민)간 개방된 소통과 투명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3) 대중사회란 용어에서의 대중이란 단어는 견고하고 결합된 사회집단이 아니라 단순한 집합체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참고문헌】

- 김기환 · 윤상오 · 조주은. (2009). “디지털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16권 제2호: 140-162.
- 김형주. (2010). “욕망하는 기계와 탈주하는 분자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현대사회과학연구』 14권: 191-210.
- 마인섭. (2002). “왜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나?”.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395-415.
- 박준. (2011). “소셜미디어가 여는 새로운 정책환경”. 삼성경제연구소. 제 808호.
-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4집 제1호.
- 변희재 · 여원동. (2008). 『코리아실크세대 혁명서』. 생각나눔.
- 어수영. (1991).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법문사.
- 지병근 · 박종민. (2008). “한국에서의 정치참여: 접촉 및 향의활동”. 『국가전략』 제14권 4호.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 Dalton, Russell J. (2008). *The Good Citizen: How a younger generation is reshaping American politics*. CQ Press.
- Franklin, Mark N. (2004). *Voter Turnout and The Dynamics of Electoral Competition in Established Democracies Since 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nk, Carolyn L. (2001), “Process Performance: Public Reaction to Legislative Policy Debate”. in Hibbing, John R. and Theiss-Morse, Elizabeth. Eds,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 Dislik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bbing, John R., and Elizabeth Theiss-Morse. (2001). “Process Preferences and American Politics: What the People Want Government to B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5, No.1: 145-153.
- _____. (2002). *Stealth Democracy: Americans’ Beliefs about How Government Should W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Kim Gang-Hoon. (2009). “An Empirical Study of the Types of Democratic Processes Citizens

- Really Want: the case of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49, No.6: 177-202.
- _____. (2010). “An Alternative Democratic Process Ordinary People Really Want in South Korea: belief in stealth democracy”. *Comparative Democracy Research*, Vol.6, No.2: 131-158
- Lawrence, Robert Z. (1997). “*Is It Really the Economy, Stupid?*” in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Joseph S. Nye, Jr.,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 e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Lee, Junhan. (2002). “Primary Causes of Asian Democratization: Dispelling Conventional Myths”. *Asian Survey*, Vol. 42, No. 6: 821-837.
- Lipset, Seymour M. (1994). “Th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Revisit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9(February 1994): 1-22.
- Nye, Joseph S., Jr. (1997). *Introduction: The Decline of Confidence in Government*. in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Joseph S. Nye, Jr.,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 e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atterson, Thomas. (2002). *The Vanishing Voter: Public Involvement in an Age of Uncertainty*. New York: Knopf.
- Piven, Frances and Richard Cloward. (2000). *Why Americans Still Don't Vote: and Why Politicians Want it That Way*. Boston, MA: Beacon Press.
- Shin, Doh Chull., Park, Chong-Min., and Jang, Jiho. (2005). “Assessing the Shifting Qualities of Democratic Citizenship: The Case of South Korea”. *Democratization*. Vol. 12, No. 2: 202-222.
- Ted Becker & Christa Daryl Slaton. (2000). *The Future of Teledemocracy*. Praeger.
- Teixeira, Ruy. (1992). *The Disappearing American Voter*. Washington, DC: Brookings.
- Wattenberg, Martin. (2000). *Where Have All the Voters Gon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Young, Whan Kihl. (1990). “South Korean in 1989: Slow Progress toward Democracy”. *Asian Survey*, Vol. 30, No. 1: 67-73.